

시론 IMF 극복의 지혜 ④

경제통념 재검토

경제학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고전적 인 공리가 있다. 그러나 최소, 최대의 개념은 단순한 물리적 양은 아니며 또한 최대, 최소에 접근하는 방법, 수단에도 가치적 문제가 개입한다.

친민자본주의 탈피 경제구조 수정 급선무

가령 기업 활동에 있어 최대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째, 종업원의 조직에 대한 귀속의식 둘째, 구성원의 계급의식 셋째, 경영자의 사명감 넷째, 창조에 대한 적극성 다섯째, 근로 윤리 여섯째, 경제적 윤리감... 등 가치적 요소가 크게 영향을 준다. 이들은 사회적 봉성, 문화적 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또한 기업 활동에 있어 최대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째, 종업원의 조직에 대한 귀속의식 둘째, 구성원의 계급의식 셋째, 경영자의 사명감 넷째, 창조에 대한 적극성 다섯째, 근로 윤리 여섯째, 경제적 윤리감... 등 가치적 요소가 크게 영향을 준다. 이들은 사회적 봉성, 문화적 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다. 재벌은 우선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기적인 수단으로 거금을 번 뒤 그것으로 기반을 닦는다. 특히 부동산에 열을 올린 것은 농경 사회 때의 전통적 사고 때문이다. 당연한 일로 여기에는 권력이 든, 땅이 일체화되어 있었다. 서민들도 이에 질세라 부동산 투기, 증권 투자 등에 열심이다.

5공 시절 '박사 위에 육사가 있고, 육사 위에 여사가 있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그러나 기술 기능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다. 97년도 사시 수석 합격자 서울대 문리과 출신이었는데 상정직이어서 서울대 학생의 80% 이상은 사시에 대비하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향은 경제 행위의 목적이 경제 자체가 아닌 세(勢) 확장에 있는, 한국 기업의 특징이다.

'잘 살아보세' 보다 '보람있게 살아보세'

대학교 교사(敎舍)의 확장, 동창회관의 거대화, 학생, 학과 수의 증가를 바로 교세(敎勢)로 인식하는 것이 한국인의 심리다. 그 결과 많은 부실기업과 부실학원 등 온갖 부실 조직이 양산되고 있다. IMF 충격은 한국의 전통적 사고와 윤리에 대한 서구적 가치관과 문화 의식의 충돌로 인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간 한 번도 진지하게 시도하지 않았던 전근대 이래의 의식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제는 무조건 '잘 살아 보세'라는 표어를 외치기 보다는 '보람있게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이다.

열린마당

이중과세(二重過歲)

음력설 축소 세계화추세

손봉호 (서울대 사범대교수)

음력설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정서에 위반하는 하지만 세계화추세에서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다른나라들은 설을 하루 쉬는데 우리는 이중과세로 불과 두달만에 무려 5일의 휴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3일간의 음력설은 세계화에도 역행한다. 음력설로 인해 멋모르고 입국한 외국구매자나 외교관들과의 업무연락과 상담이 두절되어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음력설을 없애는 정서를 양력설로 옮기는 길을 택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현명하다고 본다.

휴일중복은 생산성 저하

신원식 (한국무역협회이사)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음력설을 고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중과세이므로 양력설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경관적으로 공휴일이 너무 많다.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특같은 의미의 휴일을 두번 가지는 것은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뿐이다. 산업구조적 측면과 다른나라와의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공휴일 제도 특히 설날의 조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국민 95% 음력설 원대

고시재 (공무원노동조합회장)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휴일제도가 거론하는 것은 국민분열만 일으킬뿐을 바르지 않다. 수많은 우려곡절을 거치면서 현재의 제도대로 정착했다는 것을 뒤집으려는 것은 정책이 일관성을 잃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95% 이상의 국민이 음력 설날을 찬성하고 지키고 있는 만큼 예전의 전통을 존중해 나가는 것이 정답이다. 경영자입장에서 공휴일이 많아서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하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노동자들의 적당한 휴일은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휴일축소 오히려 부작용

노진귀 (한국노동 정책본부장)

국민들이 설날을 가장 중요시하는 현실에서 음력설이 이중과세라며 철폐나 축소하려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한때 정부가 공적으로 인정받은 인



△대통령인사위회가 6일 개최한 '공휴일 제도개선 공청회'

정했을 때 국민들이 신정을 쇠고 전통적인 설날을 지키면서 이중과세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다시 신정으로 설날을 한다면 이중과세가 다시 생기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생산성 절감을 위해 공휴일을 줄인다는 것은 노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부작용이 더욱 크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양력설 휴일 줄였으면

이종양 (고려대 중문과교수)

우리나라는 설날에 세배와 차례, 고향방문 등 여러가지 전통적인 미덕이 있는만큼 서양과 비교하여 이중과세라는 지적은 부당하다. 서양인의 경우 25일 크리스마스부터 1일까지 휴가를 가지며 여행을 떠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설날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되레 양력설을 하루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1월1일은 신년시무식의 개념 외에는 없는만큼 하루만 휴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요즘의 경우 설날이 자리를 잡아 국민정서상 신년으로 옮기는 무리이다. 효율적인 구조차원에서 신년과 전통명절의 구별은 필요하다.

공휴일 탄력적용 검토를

강광식 (정신문화연구원장)

문민정부초에도 총무처 주최로 공휴일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필요성을 갖고 있지만 국민들의 뜻은 그렇지 못해서 실행되지 못한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적 만큼 옛날처럼 정부가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통일시키려 하지 말고 공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설날연휴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불거진 설날의 이중과세(二重過歲) 문제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음력설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세계화 추세 속에서 이중과세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음력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민족의 전통과 국민정서의 함양에 필수적이라는 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사위원회는 6일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공휴일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된 각계인사들 의견과 불교계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의견 보탬이다

요즘 김대중 당선자가 공휴일 제도와 관련 '설날'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이중과세를 없애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 한번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음력설이 매도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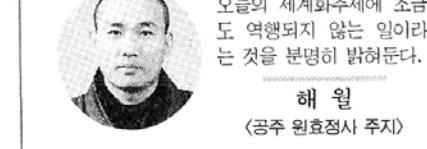
한마디로 설날은 한해라는 역사의 시작이다. 그를 바탕으로 각종 세시문화를 꽃피우고 농경사회의 기초가 이룩됐다. 또 우리에게 가정과 문명 및 국가의식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신세의(설빔), 세배돈, 백제호(수정과), 도관회(널뛰기), 소종과(부담계기), 제약반(약밥), 총이추(귀밝이 술), 팽매서(더위팔기), 망원월(달맞이), 담교왕, 양산전 등 이루어질 수 없

'설날은 조상 공경하는 한국문화 유산이다'

는 정월의 세시풍속만 보더라도 이를 증명한다. 새해첫날인 설날은 고향을 찾아가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을 찾아와 세배드리고 덕담을 듣는 날이기도 하다. 설날은 조상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우리문화의 소중한 유산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문화유산일 수 없다. 그러므로 설날이 갖는 민족문화의 가치는 단순히 공휴일을 즐기는 차원에서 가능할 일이라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설날을 하루라도 없어서의 국민과보조를 맞추고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공감하는 면도 있으나 미래적으로 볼때 설날이 갖는 문화가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올리는 방법이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우리삼의 밑바탕을 흐르는 좋은 명절과 세시 풍속을 유지 발전시키는 오늘날의 세계화추세에 조금도 역행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준다.



해일 (공주 원효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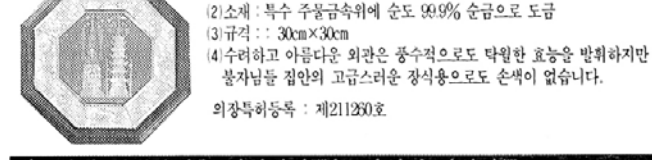
정권 바뀔 때마다 이중과세 '논란'

설날은 1885년 정부가 태양력을 공식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미 1873년에 양력을 채택한 일본은 한민도를 통치하며 양력설을 최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듬해 초대정권이라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양력설을 도입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과 강압정권의 시대에도 국민들은 양력설 보다는 음력설을 지켜왔다. 대다수의 국민정서에 부합하여 1985년 전두환정부가 1월1일을 민족의 날로 지정하였으나 1989년 노태우정부는 그동안 '구정'이라는 명칭을 '설날'로 복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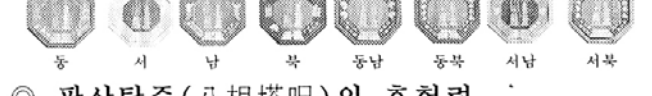
팔상탑주란?

'사람에게는 인상(人相), 관상(觀相)이 있고 집에는 가상(家相)이 있다. 이 가상(家相)의 여덟방위에는 주역의 팔괘에서 말하는 길상(吉相)인 팔상(八相)이 존재하고 있으며 팔상(八相)은 여덟가지의 인생사(人生事) (1)결혼 (2)행운 (3)부 (4)가정 (5)지식 (6)진로 (7)조력 (8)자식을 뜻한다. 이 8방위의 방위를 각방위별로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수(교정수)로서 팔괘의 팔방위와 음양의 불합치나 신주(神位)와 오행상의 길(吉)한 색상과 상징물, 숫자, 주술(呪術) 등을 도입하여 조성된것과 이곳에서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위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음하여 팔상탑주(八相塔呪)라 하였다.

3)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



4) 8방위 영역발전을 성취시켜주는 방위별 팔상탑주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팔괘와 음양의 조화, 십이지·오행상의 상생은 조화시킨 양태 생활공수원리와 불타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족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되는 순간부터 그 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밀스런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인들에게 미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혼·재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토록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과 기쁨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양력생활공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팔상탑주(八相塔呪)책자내용의 요점설명

- 1) 음택풍수측면 :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후손에게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해주는 방법수술
2) 양택풍수측면:
① 사업이 잘 안될때 이를 개선시키는 방법
② 대학입시나 고등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할 때
③ 노처녀나 노총각이 결혼을 빨리하고자 원할때
④ 부부간에 불화가 심할경우 부부금실을 좋게 해 주는 방법
⑤ 자녀가 없어 아이갓기를 간절히 원할 때
⑥ 불치병등을 완치시키고자할 때 풍수적인 조치방법
⑦ 부동산등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할 때
⑧ 식당, 레스토랑, 다방, 술집, 가게, 상점, 슈퍼마켓, 약국, 여관, 호텔, 사무나, 목욕탕, 학원등 영업장소에 고객들이 증가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12품팔상탑주를 적용시켜 풍수적으로 그 개선방법과 해결책 제시!!

"스님들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발휘되는 팔상탑주 처방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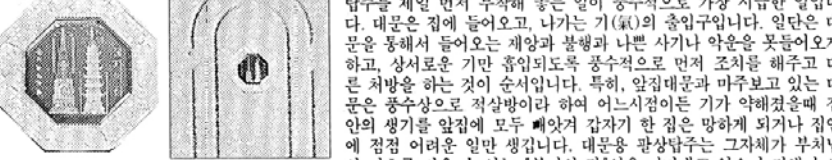
- ◎ 본 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암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현재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의 신도들에게 풍수적으로 불가사의한 효험력을 나타내는 팔상탑주를 적용하여 신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 불자님들께는 본 책자를 요약한 카타로그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판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이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불자님들께서는 다음을 설명드리는 2종류의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상탑주는 이 두품을 먼저 적용하고나서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시어 단계적으로 적용방법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품만 먼저 적용하셔도 자신의 악한 운세가 변화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1) 대문용 팔상탑주를 대문앞에 부착해 주십시오.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누구나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용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이 풍수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대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입니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못들어오게 하고, 상스러운 기만 흡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주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앞집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풍수상으로 적상방이라 하여 어느정도로 기가 약해졌을때 집안의 생기를 알집에 모두 빼앗겨 갑자기 집안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이 점점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대문용 팔상탑주는 그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불자의 집'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생활공수원리에 맞도록 조성되어 있어 강력하고 좋은 기(氣)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에 부착하면 일단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약하여 집안의 상스러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맛이 역활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 및 목걸이용 팔상탑주를 차안에 걸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각 집마다 차량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의 현실에서 차량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의 한일 것입니다. 사업창도 좋고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차량은 필수품이 되어 매어 놓으려해도 놓을 수 없는 실정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팔상탑주는 차안에 걸러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성된 차량용 팔상탑주는 앞면에 종관팔상탑주, 뒷면에는 팔괘만다라를 새겨넣어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지를 위협시키고 방생시켜 차안에 생기가 중단해 해주고 그로인해 운전자가 답습자의 운기를 강하게 향상시켜 주므로써, 외부로부터의 사고방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예견해주는 작용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차량자체도 생기가 편이와 돌발적인 사고가 저절로 피해가도록 조절해 줍니다.

● 차량이 없는 분이나 혼자서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은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등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에 지니고 다니면 몸 전체에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되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펼쳐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체결이나 시험보러갈때, 관재가 있거나 심재가 온 사람은 꼭 목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특히 시험하시는 분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 간절히 소원이 있는 분은 필히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